PUBLIC ART

퍼블릭아트

ISSUE NO. 219
202412

EXPERIMENTAL ART IN KOREA

한국 실험미술

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
ARTINPOST.CO.KR
DECEMBER 2024



9 771975 643707 12
ISSN 1975-6437

우수콘텐츠잡지 2024

월간 퍼블릭아트

PUBLIC ART

목차

030 EDITORIAL
· 아니나 다를까_정일주

032 ART LOG
· 2024 수림미술상 수상작가전:
김명범_물질 접속사 마찰음
· 김나영 & 그레고리 마스_파라노이아 파라다이스
· 최민영_꿈을 빌려드립니다
· 백남준, 백남준, 그리고 백남준
· 협업의 기술
· 2024 ACC 포커스: 구본창_사물의 초상
· 일구지난설(一口之難說)
· 빌 비올라_Moving Stillness

040 SPECIAL FEATURE
한국 실험미술
Ⅰ. 한국 실험미술의 역사_강수정
Ⅱ. 30년 후, 한국 실험미술의 미래_윤진섭
Ⅲ. 실험미술에서 다시 미술가의 실험으로_조수진

070 ARTIST
· 마르게리트 위모 · 만약, 종의 기원_김성연
· 송정인 · 고귀, 그 오묘한 빛의 마루_정일주
· 임은경 · 사회적 환경과 시각적 서사,
예술의 '쓸모 있는 가치'에 대한 물음_최윤정

090 PUBLIC & TECH
· 전시장 속 예술가의 작업실:
작업실이 전시될 때_최희승

098 CRITIC
· 생존 기예로서의 예술 III. 가속과 허구_이연숙
· 이배, 숯으로 규명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앙파티.
발현되는 한국적 정신성_김진
· 공공미술 향유와 실천의 공리성 그리고
예술 교육_장원

110 ART WORLD
· 영국 ·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_변하연
· 미국 · The '70s Lens: Reimagining
Documentary Photography_이한빛

122 PREVIEW
· 제24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: 권오봉
· 박기원, 박소희_모든 조건이 조화로울 때
· 빛의 거장 카라바조 & 바로크의 얼굴들
· 모레이의 부피들 etc.

128 REVIEW
· 니콜라스 파티_더스트
· 최상철_무물(無物)
· Time and Narrative 시간과 이야기
· 김태은_참견의 정석
· 황란_Evanescence and Regeneration
· 성상은_읽어 낸 시간
· 권대훈_Objemage(Objet+Image):Postcard

136 KEY WORK
· 2025 ACC 개관 10주년 특별전
사전 국제 심포지엄
· 마카오 폴리 MGM 뮤지엄 개관
· 안양문화예술재단 2024 학술 포럼
· 리움미술관 2024 아이디어 뮤지엄
· K-Women: 한국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
· 장철원_윤곽지도
· 눈 홉뜨기: 미디어 파사드를 위한 제안들
· 송하영_Re:Sense

COVER STORY



최지원 <블루문> 2023 캔버스에 유채 193.9×130.3cm
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, Seoul

인형은 꽃이 그려진 셔츠를 입은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. 웃지도 그렇다고 놀라거나 화가 난 것 같지도 않은 표정이지만 어쩐지 호기심만은 가득 찬 듯하다. 성긴 울타리를 넘어온 걸까, 애초 거기가 인형의 자리인 것일까. 우리에게 보이는 방은 창과 창틀 그리고 블라인드와 4개의 피규어가 전부다. 창가 가운데에 종이로 만든 것인지 도자기인지 알 수 없는 성(城)이 있고 그 주변으로 물고기가 분방한 방향으로 놓여 있다. 우리는 그저 그것만 볼 수 있다. 그러나 참으로 궁금하다. 꽃무늬 셔츠의 인형 시야엔 대체 무엇이 펼쳐지고 있나.

작가 최지원은 1996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. 인공과 자연의 요소를 오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시대 사회의 도상을 완성하는 그는 '2022 퍼블릭아트 뉴히어로'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전시 <Inter-frame, 转场聚会>(중국 상하이 Backstage, 2024), <멈춰버린 순간>(박서보재단 ARTBASE 26SQM, 2024) 등을 통해 꾸준히 작업세계를 선보인 바 있다. 주요 개인전으로 <채집된 방>(디스위켄드룸, 2023), <차가운 불꽃>(디스위켄드룸, 2020)이 있다.

NO . 219

DEC 2024